

200자 안내

臺灣 대 韓國

쓰루마키 야스오 지음 / 박경수 옮김

일본의 경제평론가가 '아시아의 두 龍'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제를 비교분석한 책.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두 나라의 성장과정과 사회적 배경, 당시의 국제정세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80년대말부터 시작된 성장둔화의 요인, 두 나라 공통의 유교문화가 경제개발에 미친 영향 등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해돋이 / A5신 / 236면 / 3800원

동행의 끝

임선영 지음

「헬로우 미미」 「억새풀」 등으로 잘 알려진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한 명문대 학생의 체험기를 바탕으로 했다고 전해지는 이 작품은 부유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소박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대비를 통해 평범한 삶에서조차 소외당한 채 생활해야 하는 불행한 이웃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江川 / A5신 / 316면 / 4500원

아름다운 이별

다니엘 스틸 지음 / 이석주, 채명희 옮김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 광고업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미모의 여주인공 사만다 테일러가 뉴욕에서 LA까지 미대륙을 횡단하며,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서부의 목장을 무대로 펼치는 사랑이야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냉정한 완벽주의자이면서도 따뜻한 인간애를 동시에 지닌 주인공의 성격 묘사가 눈길을 끈다.

천지서관 / A5신 / 450면 / 5800원

인간에의 길

김의정 지음

「목소리」로 월탄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의 문단 첫 데뷔소설. 경향신문 장편소설 공모시 당선됐던 작품이다. 프랑스에 유학중이던 주인공 루미와 그의 동생 진은 알프스에 오르던 중 예기치않은 사고로 동행했던 친구 두

명을 잃는다. 자책과 방황, 가족들의 실의앞에 속수무책인 자신에게 절망하지만 슬픔과 고통을 딛고 자기삶을 다시 추스리기까지의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성바오로출판사 / A5신 / 296면 / 4000원

파라독스 중국우화

이효림 엮음

魯迅, 郭沫若, 茅盾, 艾青 등 중국의 현대작가 23인이 쓴 우화 모음. '텔레비전이 머리채를 자르다' '데면데면한 수평아리' '매의 시련과 거위의 행복' 등 인생의 교훈이나 처세, 정치 사회현실에 대한 썰물듯한 풍자를 담은 중국 특유의 우화 70여편이 들어있다. 부록으로 수록된 작가들의 간략한 약력과 중국우화에 대한 개괄적인 해제를 실었다.

정신세계사 / A5 / 186면 / 3500원

싸움없이 이겨라

素空慈 지음

군대나 조직 운용에 필요한 기술이나 인간관계 처세술로 널리 이용되어온 「손자병법」을 독특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책. 저자는 "손자의 병법은 싸워서 그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단 한번의 소중한 삶을 위해 자신의 생명이 쓰여지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의 방법이며 삶의 예술"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

골든북 / A5신 / 352면 / 4500원

꼭두각시 인형

O. 헨리 지음 / 서계인 옮김

「마지막 잎새」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의 소설모음. 3백여편의 작품 속에 다양한 삶의 유형을 형상화했으며, 실제로 묘한 행적의 소유자였던 작가의 추리단편만을 모은 이 책을 통해 독자의 의표를 찌르는 독특한 구성과 생동감 넘치는 문장을 만나게 된다.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28편의 단편이 수록작품.

지문사 / A5신 / 250면 / 4500원

복수법정

헨리 덴커 지음 / 이상곤 옮김

법정실무 경험이 많은 작가가 쓴 추리소설로 선량한 시민이었던 66세의 주인공이 그의 딸을 강간·살해한 범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강간·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뉴욕주 법률의 허점을 소재로 법 자체의 한계성과 인간성 회복의 문제를 다룬 작품.

고려원미디어 / A5신 / 338면 / 4500원

각설이 타령

김기린 지음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것은」 등의 시집을 펴

냈던 대중시인이 자신의 눈에 비친 세상의 부조리함 등을 풍자한 책. 차기대통령은 새로운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정치문제에 대한 글과 기여입학제·재벌들의 공익사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며 쓴 글 17편과 자작시도 곁들여 놓았다.

삼한 / A5신 / 256면 / 4000원

이야기 모자이크

홍지아 글·그림

단편소설·잡언·우화 그밖에 에세이 등 아흔아홉개의 짧은 이야기들을 모은 이 책은 작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양한 소재와 표현양식으로 형상화 것이 큰 특징. 시기와 사랑, 질투와 외로움 등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들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작가가 직접 일러스트도 그려 넣었다.

모자손사람 / A5신 / 176면 / 3200원

동양스승 서양제자

강효백 지음

일찍이 수많은 사상과 학자들을 출현시킨 中原인 동양이 21세기에는 다시 세계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됨은 물론 황해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권이 모든 측면에서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위치에 오르리라는 예측을 담고 있는 책. "따라서 서양의 문화와 사상에 물들어 자기 비하적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예전사 / A5신 / 368면 / 4800원

사랑으로 하는 명상

곡구아춘 지음

주인공 마사하루는 이들과의 사랑을 위해 거짓 연애편지를 보내 이웃집 처녀와 교제를 하다가 결국 동거를 하게 된다. 그러나 마침내 헤어져 여러 여성들과 사귀게 되고 그중 한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명상의 길을 걷게 된다는 줄거리. 작가의 생애를 년표선으로 꾸민 소설로 권말에는 명상시와 논문이 덧붙여졌다.

늘푸름 / A5신 / 242면 / 3800원

아이야, 바다는 눈물로 만들어졌단다

김현옥 지음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쳐다니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한없이 부러워하는 꼬마진주 조개와 태풍에 실종된 아버지를 기다리며 매일 바다에 나가 소라고동을 부는 소년 영호와의 우정을 그린 '꼬마조개와 소년', 고집쟁이 바다와 땅위의 조용하고 겸손한 호수가 빛내주는 사랑을 그린 '바다와 호수의 사랑이야기' 등 어른을 위한 동화 2편이 실려 있다.

성바오로출판사 / A5 / 112면 / 2000원

연애하는 사람은 강하다

문병란 지음

시인이자 조선대 국문과 교수로 있는 저자가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풍부한 예시를 통해 들려주는 신연애론. '남과 여, 그 불가사의한 갈등과 조화'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성' '문학작품 속의 연애 그리고 성' '현대사회의 성 그리고 참다운 연애를 위하여' 등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나라출판사 / A5신 / 328면 / 4500원

호론경영혁명

나와다로우 지음 / 김상모 옮김

기업의 발전에 무게중심을 둔 일본경제의 성공을 엿보게 하는 이 책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15개 회사의 경영철학인 호론경영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데, 호론경영이란 노사화합의 경영철학인 동시에 자율·자조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우리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세대 / A5신 / 270면 / 5200원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카무라 쓰나오 외 지음 / 이상영 외 옮김

중국의 역대 명장과 명참모들의 삶과 철학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 엮었다. 와신상담 등 술한 고사를 만들어낸 오나라 부차원 월나라 구천, 관중과 포숙의 우정, 제갈공명의 정치적 포부와 충의, 그밖에 시황제와 왕전, 문후와 오기, 유방과 장량 등 4천년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의 인간상과 당시의 시대상황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명상 / A5신 / 342면 / 4700원

韓國現代詩史의 매듭과 魂

申範淳 지음

서울대 강사인 저자가 개화기부터 해방직후에 이르는 시기의 우리 현대시를 연구 고찰한 학위논문과 그동안 발표하거나 미발표로 남겨두었던 글들을 모아 엮은 책. 개화가사의 양식적 특성과 현실의 표현양상 및 소월·백석·이찬 등의 시에 나타난 시의 특질을 분석해 모두 3장에 나누어 실었다.

민지사 / A5신 / 360면 / 6000원

이루 다 말하지 못하는 순간에...

홍윤기 지음

한국현대시인협회 지도위원이며 시인인 저자가 단테·보들레르·하이네·헤르만 헤세·베를레 등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위대한 시인과 작가들의 사랑과 절망의 시기를 짚막한

글에 옮겨 놓은 책. 31명의 문인들이 인생의 참의미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하며 남긴 주옥같은 시편들을 군데군데 인용하고 있다.

일선출판사 / A5신 / 282면 / 4000원

계간지

時調生活(1991년 겨울·1992년 봄)

[근대 작가문인 육필순례] 김소월편

[권두언] 이응백

[겨울·봄 시조단] 崔聖淵 / 김준 / 정하경 / 李基班 / 리은방 / 宣珽柱 / 채나원 / 박옥금 / 崔辰聖 / 金貞姬 / 김몽선 / 박기섭 / 김세환 / 김필곤 / 이일향 / 이선옥 / 노창수 / 유원규 / 鄭宗大

[신작특집] 김광경 / 김문익 / 이요섭 / 정시운 / 이석규 / 강인순 / 유지화 / 안문섭

[신인문학상(제11회)] 韓淳輔

[신춘문예 당선작 특집] 1981~1986년

[논단] ▲시의 이해와 창작을 위한 한 생각 (金奉郡) ▲岫汀時調에 나타난 Modernity(임종찬)

[평단] ▲신인과 에스프리(鄭時雲)

[중국 작가 순례] 김경석편

[명사 시조단] 李應百 / 朴鵬培 / 郭鍾赫 / 全漢俊 / 李得炯 / 김은숙 / 강대식 / 김정순 / 백승의 / 경진희 / 이옥분

[명사 탐방기] 金在淳현

[자연회편] 김은수

[시조생활화 강연 및 시조 백일장]

▲제31회: 성보중학교 ▲제32회: 성남시 ▲

제33회: 의왕시 ▲제34회: 인천

[어린이 시조] 서울 포이국민학교

[金載炫 名時調 英譯 V] 李鎬雨

[시조짓는 법] 유성규

時調生活社 / A5신 / 300면 / 3000원

연간지

여성과 사회(제3호)

한국여성연구회 엮음

[좌담] 여성의 정치세력화-현실과 전망(백영옥·이해찬·한명숙·이은영)

[기획연재] 올바른 여성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김영희·이명호·김영미) ▲버지니아 울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폴라인 존슨)

[시사] 다시 '읽는' 남북여성토론회(신진화)

[인물여성]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서형실)

[영화평론] 10월유신, 청년문화, 사회성 멜로 드라마(강영희)

[초점] 변화하는 세계, 여성해방의 진로 ▲이

시대의 좌파는 누구인가?(린 시걸) ▲통일 이후 동독 여성의 현실(도로시 J. 로젠버그)

▲사회민주주의의 스웨덴 여성(이건정)

[기획논문] ▲기술혁신과 여성노동에 관한 이론(신경아·서정혜·김정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한국가족의 역할 변화(김혜경·오소희·신현옥)

[연구동향]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

[서평]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여성학(함인희)

창작과 비평사 / A5신 / 370면 / 5000원

학술지

아시아문화(제7호)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특집논문] 마르크스주의의 아시아적 수용:

한국(북한), 중국, 월남의 경우 ▲공산주의에서의 아시아-부차적인 관심대상(고병익) ▲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서중석) ▲주체사상의 생성과 변천(김영명)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의 아시아적 수용(허남진) ▲1920년대 중국 대학생과 마르크스주의(백영서) ▲모택동에 있어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수용에 관한 고찰(홍광업) ▲호지명

과 베트남공산주의, 1925~1945(유인선)

[논문] ▲大祚榮의 出自와 발해의 건국과정(송기호) ▲아시아문화의 美州 傳播(방선주)

[연구동향] ▲한국독립운동 현장답사(최창희) ▲소련의 개혁 내막(장학수)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정보중심 개황(심의림) ▲한국과 일본의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박명규) ▲최근 미국의 중국 근현대사 연구동향(백영서) ▲중국의 현실과 '조선족' 문학(김정호)

[자료] 소련의 「한국학연구 문헌목록 1917~1970」 자료 번역(II)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 B5 / 363면 / 4000원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좌담] 여성의 정치세력화-현실과 전망(백영옥·이해찬·한명숙·이은영)

[기획연재] 올바른 여성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김영희·이명호·김영미) ▲버지니아 울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폴라인 존슨)

[시사] 다시 '읽는' 남북여성토론회(신진화)

[인물여성]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서형실)

[영화평론] 10월유신, 청년문화, 사회성 멜로 드라마(강영희)

[초점] 변화하는 세계, 여성해방의 진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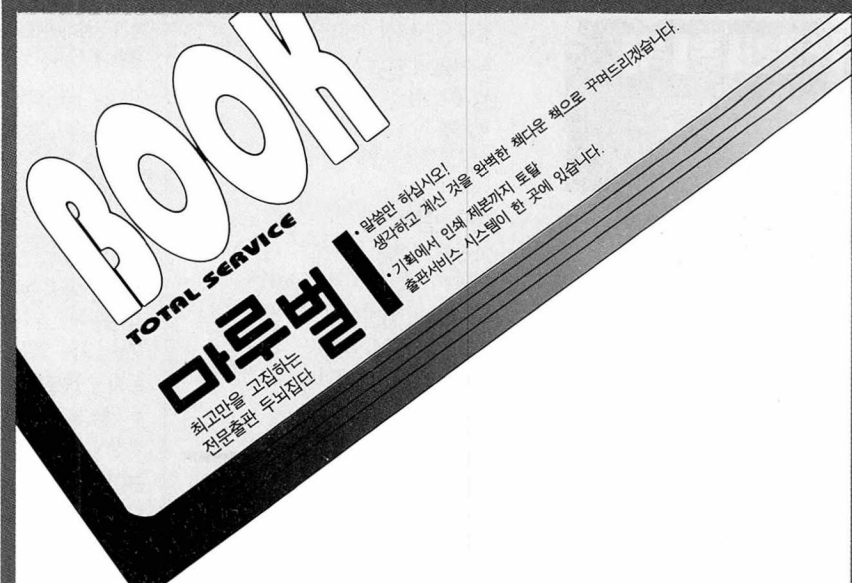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좌담] 여성의 정치세력화-현실과 전망(백영옥·이해찬·한명숙·이은영)

[기획연재] 올바른 여성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김영희·이명호·김영미) ▲버지니아 울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폴라인 존슨)

[시사] 다시 '읽는' 남북여성토론회(신진화)



혼이 있는 책! 생명력 있는 책을 만듭니다.

"세련되기는 했는데 무언가 빠진것 같다."
"편집이 엉성하군!"
"이거 교열을 맡겼더니 엉뚱한 내용으로 바꿔 버렸구만... 허허..."
"웬 오자가 이렇게 많아!"
"식자가 왜 이래? 떡을 찼군!"
"언제 끝납니까? 원고가 넘어간지가 벌써 언젠니까? 이래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인쇄가 왜 이래... 화장 잘못된 여자 같은!"

책 만드는 현장에서 흔히 듣게되는 창피하고 답답한 이야기들입니다.

- 저희 기획·편집·식자·인쇄·제작 전문집단 마루벌은 최소한 이러한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 저희는 그것을 전문성과 오랜 경험, 그리고 정성의 결합에서 나온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저희 마루벌에 있습니다. 그것은 출판·홍보·광고 기획, 편집, 운문, 교열·교정, 디자인, 식자, 출판, 제판, 인쇄, 코팅, 제본에 이르기까지 저희 마루벌은 전문성과 감각, 정확성과 함께 혼을 불어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한 정신으로 단행본, 사보, 잡지, 광고 등 인쇄매체에 관한한 장르에 관계없이 완벽한 최첨단 시설과 전문인력으로 생명력 있는 제3의 창조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혼이 있는 프로의 세계와 만나 보십시오!

전문 두뇌 집단「마루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일관 출판 시스템! 신속하고 확실한 만족을 드립니다.

- 디자인 / 표지·본문·광고·카드록 등 마케팅전략에 의한 감각적·차별적 디자인!
- 편집 / 단행본·사보·잡지의 세밀한 편집!
- 운문·교열·교정 / 완벽한 문장구성·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 3의 창조!
- 식자·출력 /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매킨토시 완벽 출력서비스
- 제판 /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원색 제판!
- 인쇄 /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고품질 인쇄!
- 제작 /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제본!
- 기획 / 원고 기획·마케팅·편집계획·광고 등 종합 컨설턴트!

종합출판서비스 **마루벌** 매킨토시 전문 업체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 701-2391(대표) FAX: 701-2395

